

교육부 -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창업지원사업/창업금융
- 소관부처/담당부서 :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우수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학생·교원 등 초기 대학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조성을 통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붐 확산 도모
- (사업내용) 정부와 대학 등(대학기술지주회사, 학교법인, 산단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

□ 예산 및 재원 : 일반회계

〈표 1〉 대학창업활성화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집행률)			(%)
□ 대학 창업 활성화	19,787		19,787 (100.0)	17,813	△1,974	△10
▪ 대학창업펀드 조성	15,000		15,000 (100.0)	12,000	△3,000	△20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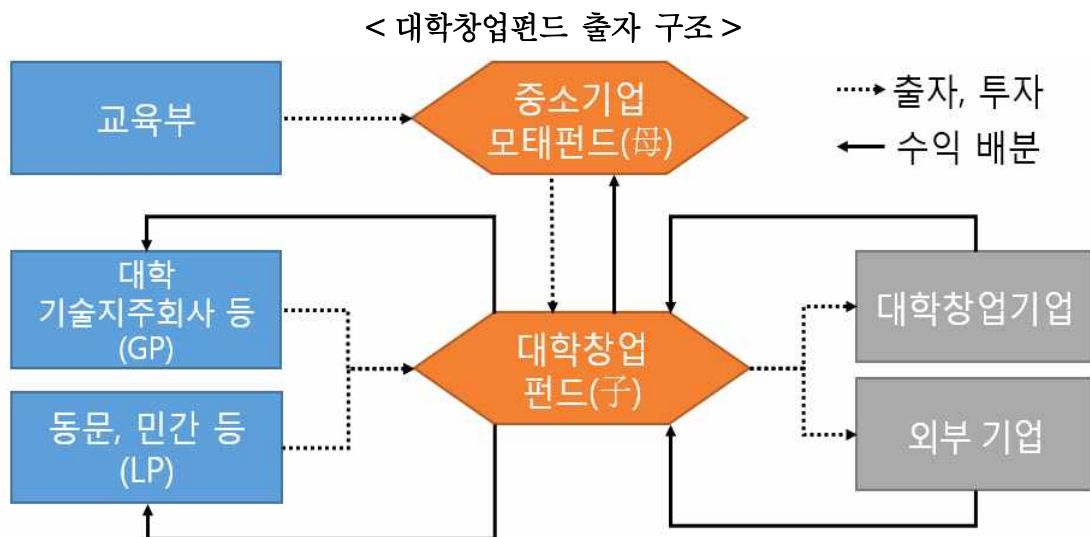
- 「산학협력법」 제4조 및 11조의2, 「벤처투자법」 제67조 및 제70조 등

□ 주요 지원대상

- 운용사(공모선정) : 대학기술지주회사*(단독, 연합) 등
※ 펀드를 운용할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 General Partner)을 선정
- 투자대상 : 초기 대학 창업기업(학생·교원 등) 등

□ 전달체계

- 정부와 대학 등이 매칭(정부3:대학1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운용사로서 투자기업 발굴·투자)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학생 창업기업(주목적 투자대상)의 적극 투자 및 투자 속도 촉진을 위해 추가 성과보수 확대 및 투자 촉진안 제시 조합 우대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성별) '20년 전체 참여자는 73명이며, 이 중 남성 참여자의 비중은 86.3%, 여성 참여자의 비중은 13.7%로 남성 참여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20년 기준 청년층(15~34세)의 참여 비중은 34.3%이며, 중년층(35~54세)은 53.4%로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함

〈표 2〉 대학창업활성화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35~39세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5,220 (77.2)	7,431 (22.8)	9,051 (27.7)	19,759 (60.5)	5,732 (17.6)	3,320 (10.2)	447 (1.4)
창업금융 전체	9,300 (100.0)	7,925 (85.2)	1,375 (14.8)	1,454 (15.6)	6,392 (68.7)	1,779 (19.1)	1,295 (13.9)	157 (1.7)
대학창업활성화	73 (100.0)	63 (86.3)	10 (13.7)	25 (34.3)	39 (53.4)	10 (13.7)	4 (5.5)	3 (4.1)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20년 사업체 73개소 중 고용보험 DB에 연계된 사업체는 71개소이며, 30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97.3%로 나타남
- (산업별) '20년 기준 서비스업 59개소(80.8%)였으며, 제조업 11개소(15.1%) 순으로 나타남

〈표 3〉 대학창업활성화 사업 사업체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4,359 (74.6)	13 (0.0)	9,137 (28.0)	205 (0.6)	14,880 (45.6)
창업금융 전체	9,300 (100.0)	8,466 (91.0)	0 (0.0)	4,694 (50.5)	72 (0.8)	3,654 (39.3)
대학창업활성화	73 (100.0)	71 (97.3)	0 (0.0)	11 (15.1)	0 (0.0)	59 (80.8)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주2: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DB가 연계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정량지표별 결과

〈표 4〉 대학창업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단위: %)

	지속고용 사업장비율	고용창출 기업비율	고용증감률	임금수준	창업률
창업지원사업 전체	71.0	62.9	53.3	131.5	84.9
창업금융 전체	85.2	89.6	48.6	123.7	-
대학창업활성화	95.7	96.7	96.9	131.3	-

주: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 DB와의 매칭률은 '19년 94.0%, '20년 96.7%임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5〉 대학창업활성화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창업지원 전체	4.33	4.34	4.19	4.42	4.20	3.97	4.17	4.20	4.45	4.34
창업금융 전체	4.41	4.44	4.21	4.51	4.26	3.91	4.13	4.25	4.53	4.44
대학창업활성화	4.39	4.35	4.37	4.69	4.27	4.08	4.35	4.46	4.50	4.35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표 6〉 대학창업활성화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전년도 대비 변화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평가년도 만족도	4.39	4.35	4.37	4.69	4.27	4.08	4.35	4.46	4.50	4.35
전년도 만족도	4.41	4.33	4.41	4.53	4.37	4.40	4.33	4.43	4.47	4.43
전년 대비 변화	△0.02	+0.02	△0.04	+0.16	△0.10	△0.32	+0.02	+0.03	+0.03	△0.08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초기 대학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기반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붐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

- 대학 창업기업에 75% 이상(학생 창업기업에 50% 이상)을 의무 투자함으로써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으나 자금 부족을 겪기 쉬운 초기 기술기반 기업 지원과 관련 일자리 창출 의의가 높음

* 198건 356.5억 원 투자 금액 가운데 학생창업기업에 57.3%를 투자

*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80%를 투자

□ 일자리 사업 성과

- 대학의 기술기반 초기기업 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존과 고용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
 - 투자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투자 시점 대비 20년 6월 기준으로 각각 70%, 61.2% 증가하여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가 인정됨
 - * 정량지표인 지속고용 사업장 비율(95.7%), 고용창출 기업비율(96.7%), 고용증감율(96.9%) 모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 양질의 일자리 관점에서 볼 때 상대 임금 수준도 낮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추정
 - * 정량지표인 경력 1년 미만 평균 초임 대비 임금수준도 131.3%로 창업금융 전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운영의 적절성

- 학생 창업 등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사와의 간담회(2회) 및 투자실적 모니터링(반기별) 등의 활동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21.1.8)하고 투자 활성화를 이룩한 점이 인정됨
 - 대학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20.12)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이의 반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
- * 만족도 조사결과도 신청 절차(4.35), 지도 및 관리(4.46) 등 운영 관련 부분에서 작년 대비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기록

< 연도별 기본계획 주요 개선 내용 >

구 분	2020년	2021년
조기투자	조기 투자계획(3년 이내), 조합 결성(2개월 이내) → 운용사 가점	조합 결성 1년 이내 약정액의 20% 이상 투자 → 추가 가점
학생투자	투자총액의 60% 이상 투자→ 초과수익의 10% 이내	투자총액의 70% 이상 투자→ 초과수익의 15% 이내(확대)
대학참여	신규대학 선정 비율 25%	신규대학 선정비율 확대(30%)
민간출자	최대 3점 가점 부여	최대 4점 가점 부여
지방투자	지방기업투자 시 가점	지방 운용사 가점 신설

□ 제도개선 노력

-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사업참여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국회 지적사항이나 '20년 재정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하는 노력이 인정됨
- 이해관계자의 성과 보수체계 개선 요구, 국회 지적사항이었던 조기 투자 및 민간투자 비중 제고 요구, 전년도 재정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제기된 지역 창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적극 이루어짐